

독일 오랫동안 박지원, 황경화 선교사님 소식 전합니다. 그동안 많이 힘든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께,

평안을 바랍니다. 저희들의 형편을 궁금해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진작 알려 드리지 못한 점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나마 이 편지를 통해 저희의 현재 상황을 전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 이다“ 이는 필요를 따라 온 많은 무리들을 섬기느라 지치고 힘든 어느 날 제자들이 주께 청한 말이다. 우리의 형편과 너무나도 일치하는 상황이다.

지난 여름을 지내기가 너무나도 외롭고 외로웠다. 가족과 이웃이 가까이 있어도. 대도시의 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도…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 우리를 찾지만 우리에게 도움은 주지 못하는 저들을 섬기느라 우리는 지치고 말았다. 주위를 둘러 보니 아무도 없는 듯했다.

초기에 함께 했던 두 가정은 떠나 갔다. 부인들은 언어적으로 소통이 되지 않아 힘들어 했고 끝내는 취직이 된 후 떠나 버렸다. 프랑크푸르트로 옮겨 와 가까이에서 직장도 찾고 선교 사역을 돕겠다 다짐하던 처음 약속은 잊혀진 듯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매우 실망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빌며 떠나 보냈다.

여학생 안네케는 학업을 마치고 고향 홀란드로 가서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유일한 학생으로 신실하게 사역에 함께 했는데… 그녀를 생각하면 기쁜 일이나 사역을 시작할 때 동역자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우리로서는 매우 섭섭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열어 주신다는 것을 또다시 경험했다. 이로 인해 오히려 믿지 않는 이웃들과 만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역의 중심에도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돈을 위해 일하고 그 결과로 인한 불행들이 곳곳에 보였다. 개인주의에 물든 자주적 인간 속에 팽배한 외로움,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으려는 심지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인본주의적 독립성, 자유 속의 고독.

그런 외로운 사람들의 초대에 응한다는 것은 곧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끝도 없는 그들의 넋두리를 들어 준다는 말인데 참으로 그들의 불경건함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이혼에 대해 중독에 대해 세상 염려에 대해… 한참이 지나도록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

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회의가 생긴다.

제자들처럼 손수건을 던지며 예수님께 저들을 보내소서 저는 더 이상 저들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외칠 수 밖에 없다. 물질적으로 보자면 월세 내기에 급급한 내 형편에 비하면 저들은 나보다 훨씬 나은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자꾸만 우리를 찾는다. 이것 저것을 좀 도와 줄 수 있는지 물어 오는 저들을 대하기에 지쳐서 주어 저들을 보내소서 우린 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기적인 저들을 섬기기가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은 또다시 계속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된다. 적자를 감당하면서 그래도 저들이 언젠가 주님 앞으로 돌아 올 것을 기대하며 순종할 것인가?

주님 대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에게겐 물고기 조금과 빵 조각 조금 뿐입니다. 우리가 먹기에도 부족한 정도입니다. 유럽의 경제 중심지 프랑크푸르트에서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나에게 이 말씀은 사각지대와 같이 여겨진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라고 권한다. 오히려 신자들이 많은 곳으로 가면 어떨지... 아프리카나 아시아는... 가난한 나라에서는 유럽에 비해 적은 경비로 많은 결신자들을 얻는다는데... 등등

하지만 선교가 무엇인가? 물질적 결핍이 있는 곳만이 그 대상인가? 온 세상인가? 무엇이 결핍인지를 대체 누가 정한다는 말인가? 성공이 무엇인지를 누가 정하는가? 매달 평균 회심자의 수로 정할 수 있는가? 두 달란트 받은 자나 다섯 달란트 받은 자나 동일한 칭찬을 받지 않았는가? 유럽 선교는 그야말로 두 달란트 리그전이다. 이곳 생활비는 최상이다. 수입도 그렇다. 하지만 일꾼은 찾기 힘들 정도로 귀하다. 여러 면에서 ,mission impossible' 이라 하겠다.

지원, 넌 왜 이런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니? 나 스스로도 수없이 하는 질문이다. 대답은 유일하게 한 가지: 동정심이다. 이곳 사람들에게서 지금까지 보이는 것은 바로 „목자 없는 양떼“의 모습이다. 나는 그런 그들은 좋아하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 줄 수 있다. 그들은 내가 이곳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말한다. 그들은 내가 자기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을 귀히 여긴다. 내가 자기들을 유익하게 한다면서 그러니까 나를 또다시 찾게 된다고 말한다.

오천 명을 먹이기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를 살피면서 나는 이따금 찾아 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주님 제가 이곳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그들은 다 가졌습니다! 우리보다 더 누리고 있어요. 저의 소유는 저

의 필요를 채우기도 급급하거든요! 제 자신도 어거하기 힘든데 누구를 돕는다는 말입니까?! 예수께서는 지금도 „지원, 너에게 있는 것을 내게 가져 오라! 축사하고 오천 명을 먹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지난 2년 간 프랑크푸르트 시내 중심에서 외로운 사람들 가운데 집중적으로 교제하며 살 수 있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선교 훈련을 통해 이웃 사람들 사이에서 저들의 삶을 경험하면서 공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 왔습니다. 고통, 아니 그것을 넘어서까지.

향복할까? 자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새 직업을 찾지도 않을 것입니다. 모든 고난과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3년을 버틴 지금 우리는 이곳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과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한 깊은 동정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매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박지원 & 황경화 드림